

MY BIBLE FIRST B32

개와 고양이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

침례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목차



01 성경말씀 회상하기

02 중심생각 연결하기

03 천연계로 확장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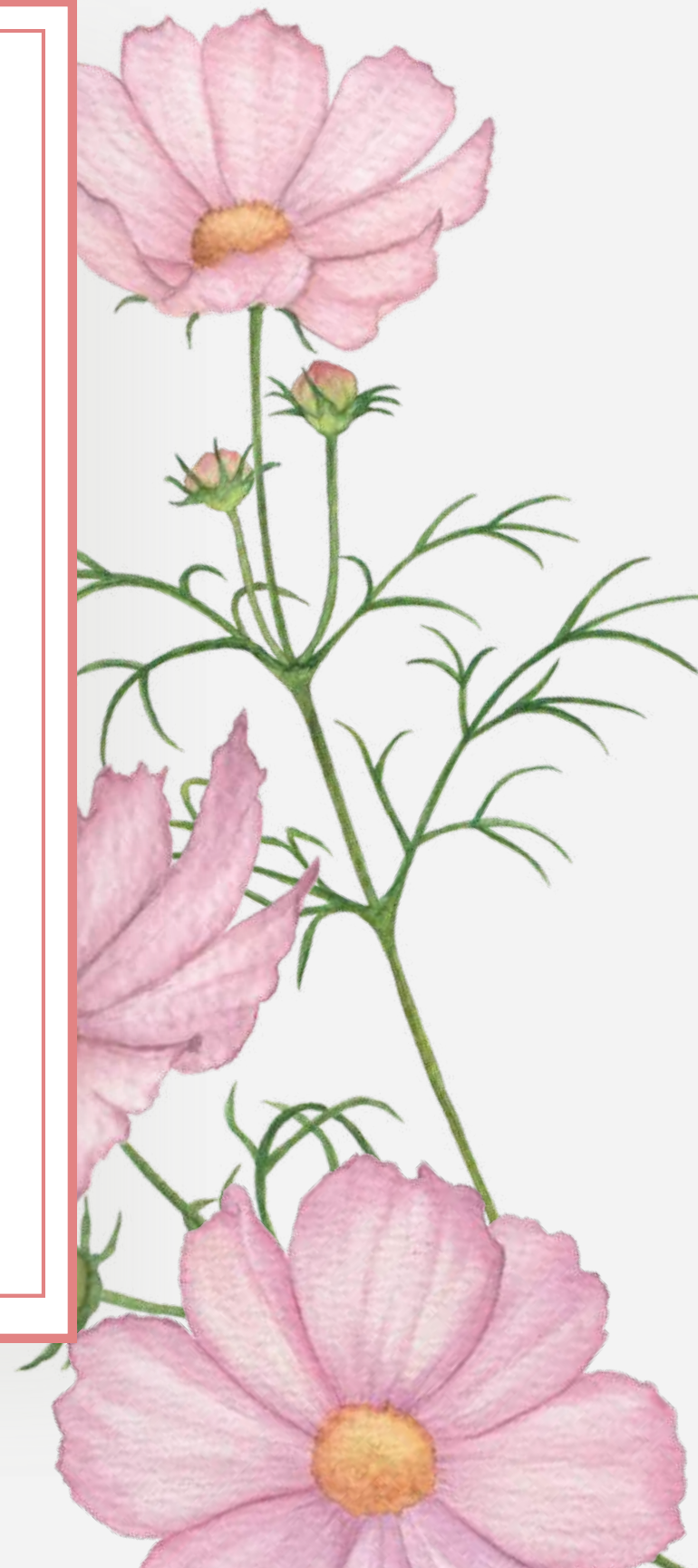
04 성경학습활동 1

05 성경학습활동 2

사람들은 흔히 “안 좋은 동네”라고
부르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유 없이 나쁘게 보이기도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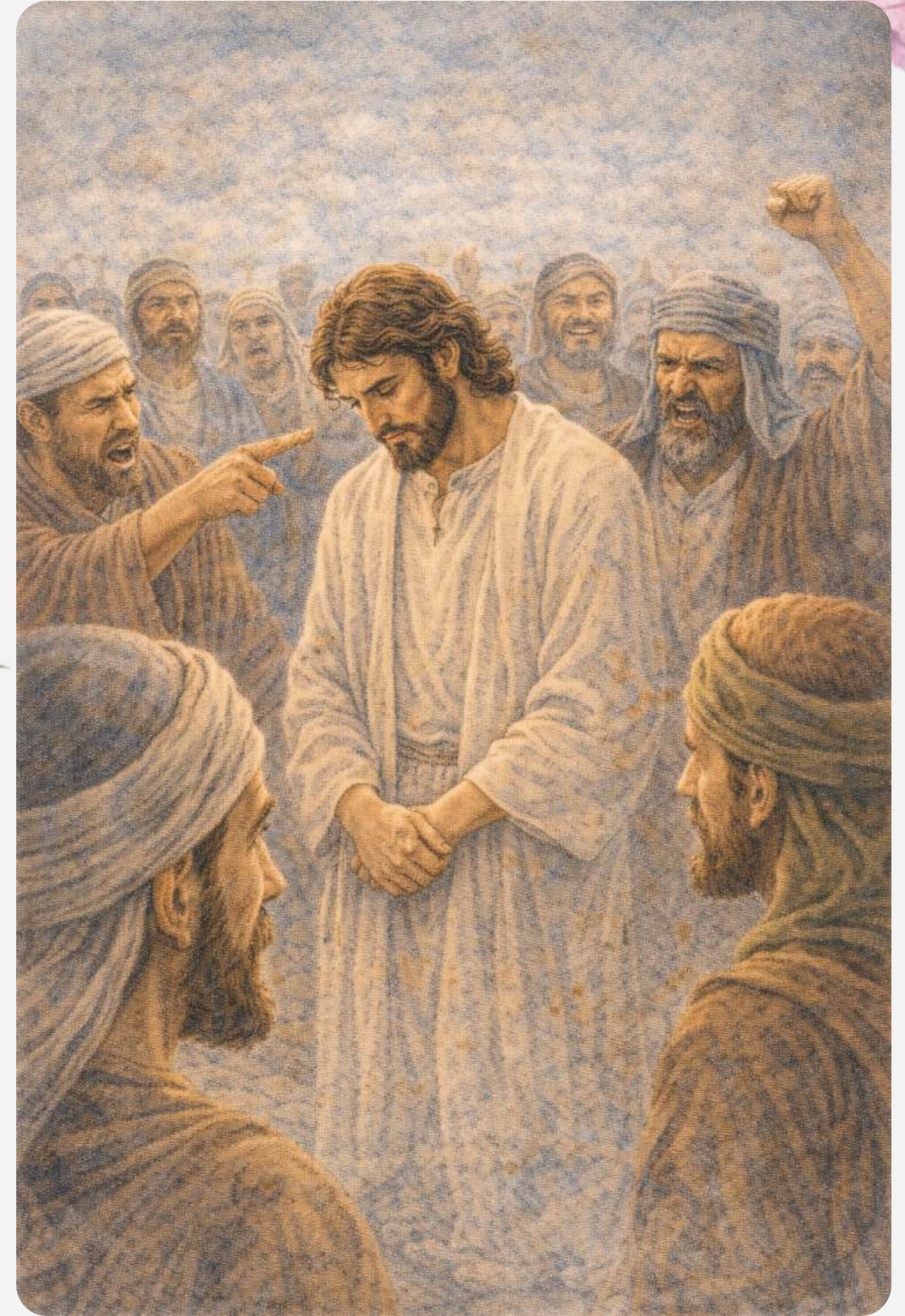
예수님도 그런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셨어
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정과 출신을 험하게
말했고,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조차 예수님
을 이해하지 못하며 괴롭히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선을 행해도 놀림을 받고,
사랑을 주어도 무시당할 때가 있었어요.

사탄은 이런 때를 이용해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린이들, 슬픈 사람들,
마음이 약한 이들, 그리고 작은 동물들까지
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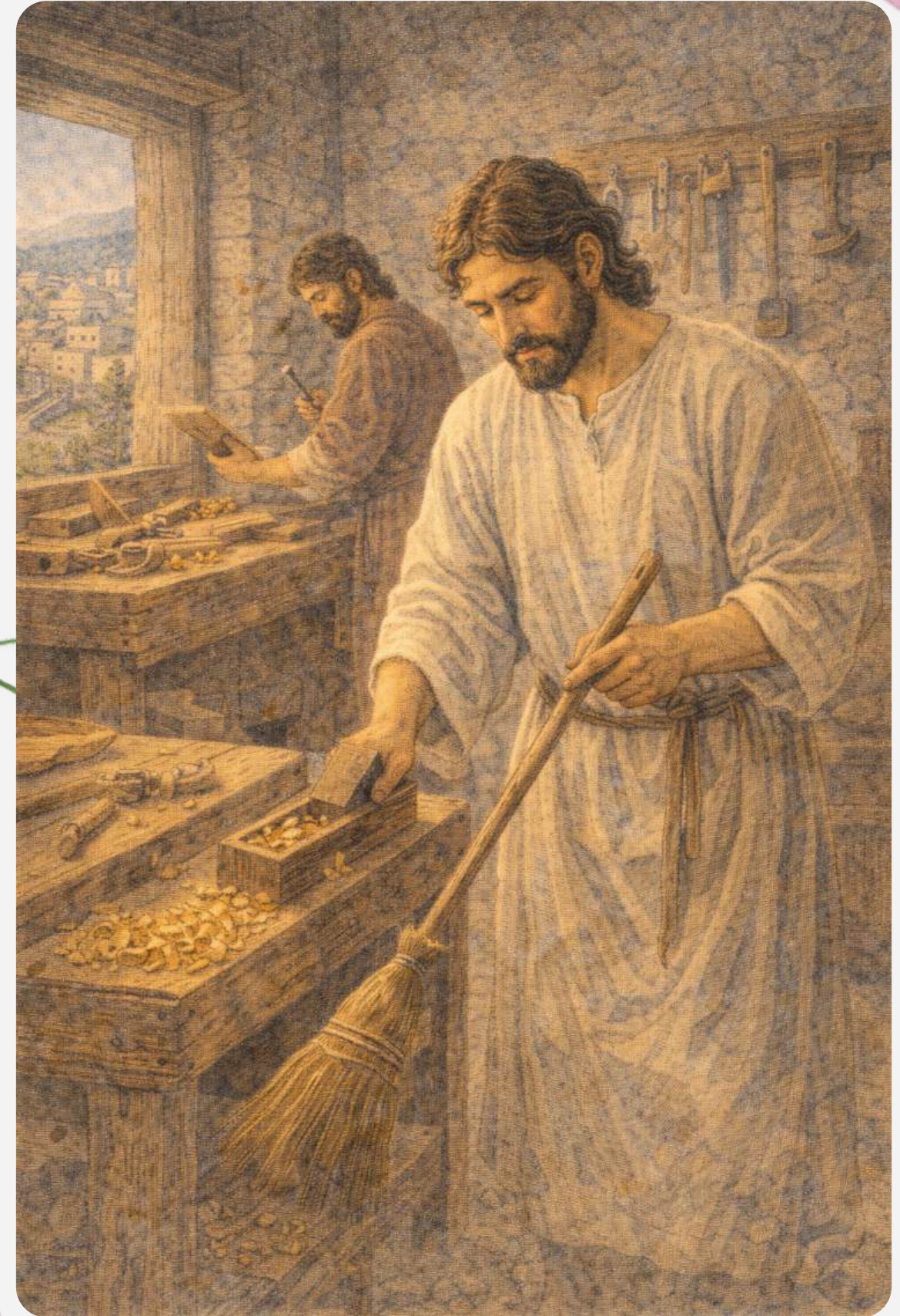
예수님은, 예수님께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로 일하셨어요.

나무를 다루는 법을 열심히 배우고,
일이 끝나면 항상 깨끗이 정리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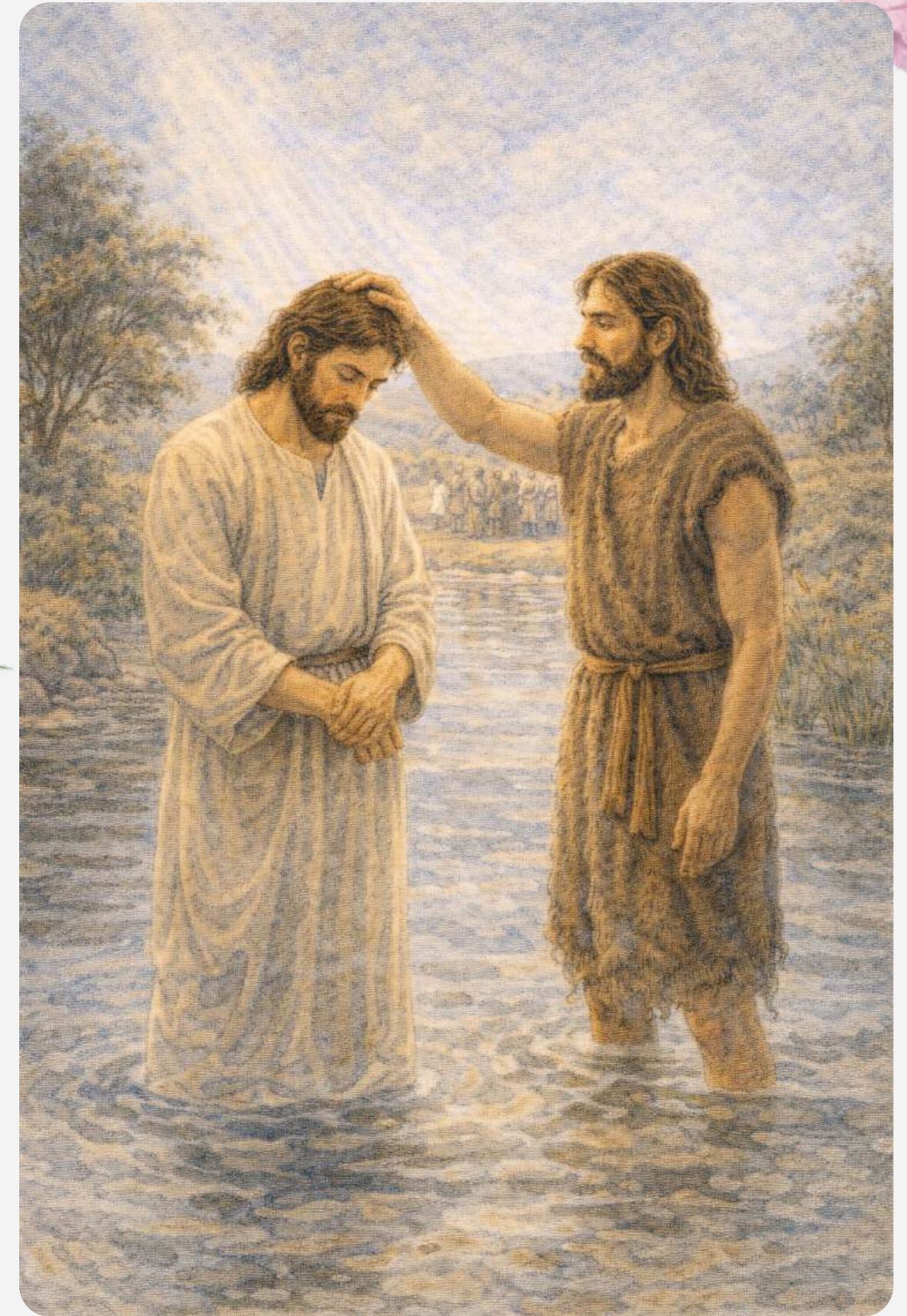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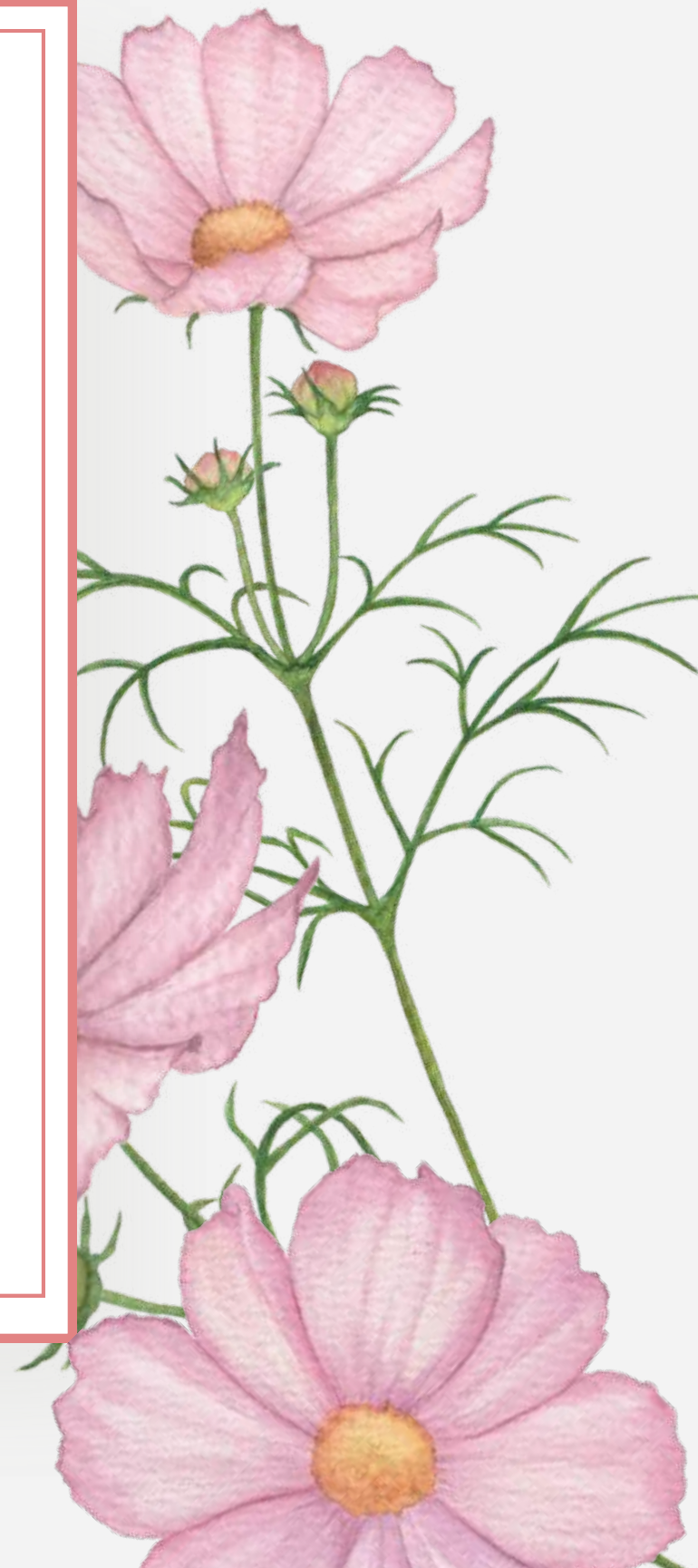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가난했지만,
몸을 잘 돌보며 건강하게 자라셨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조용한 순종의 시간이었어요.



요한은 자라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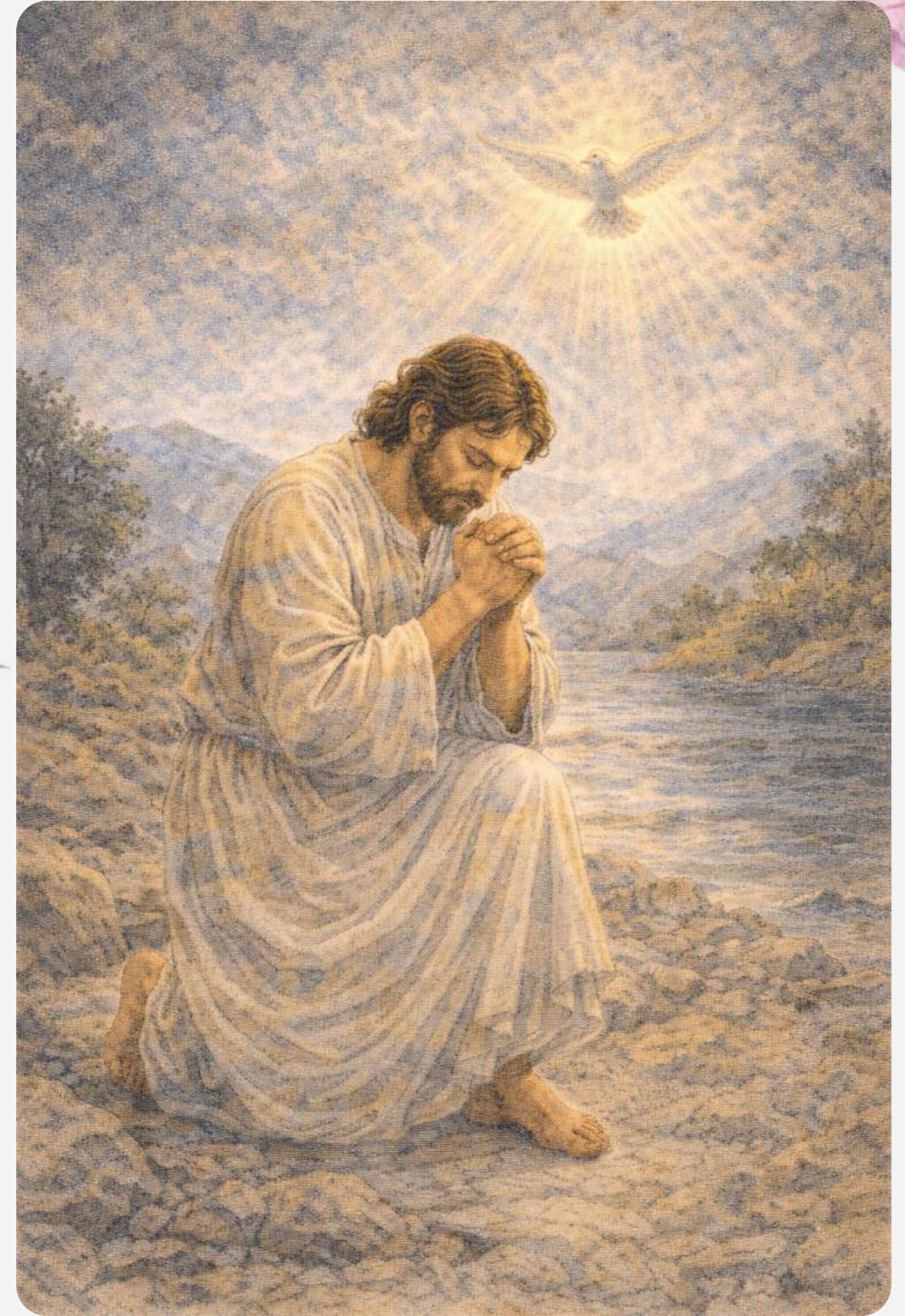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자,
예수님은 일터를 떠날 때임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인사하고
요단강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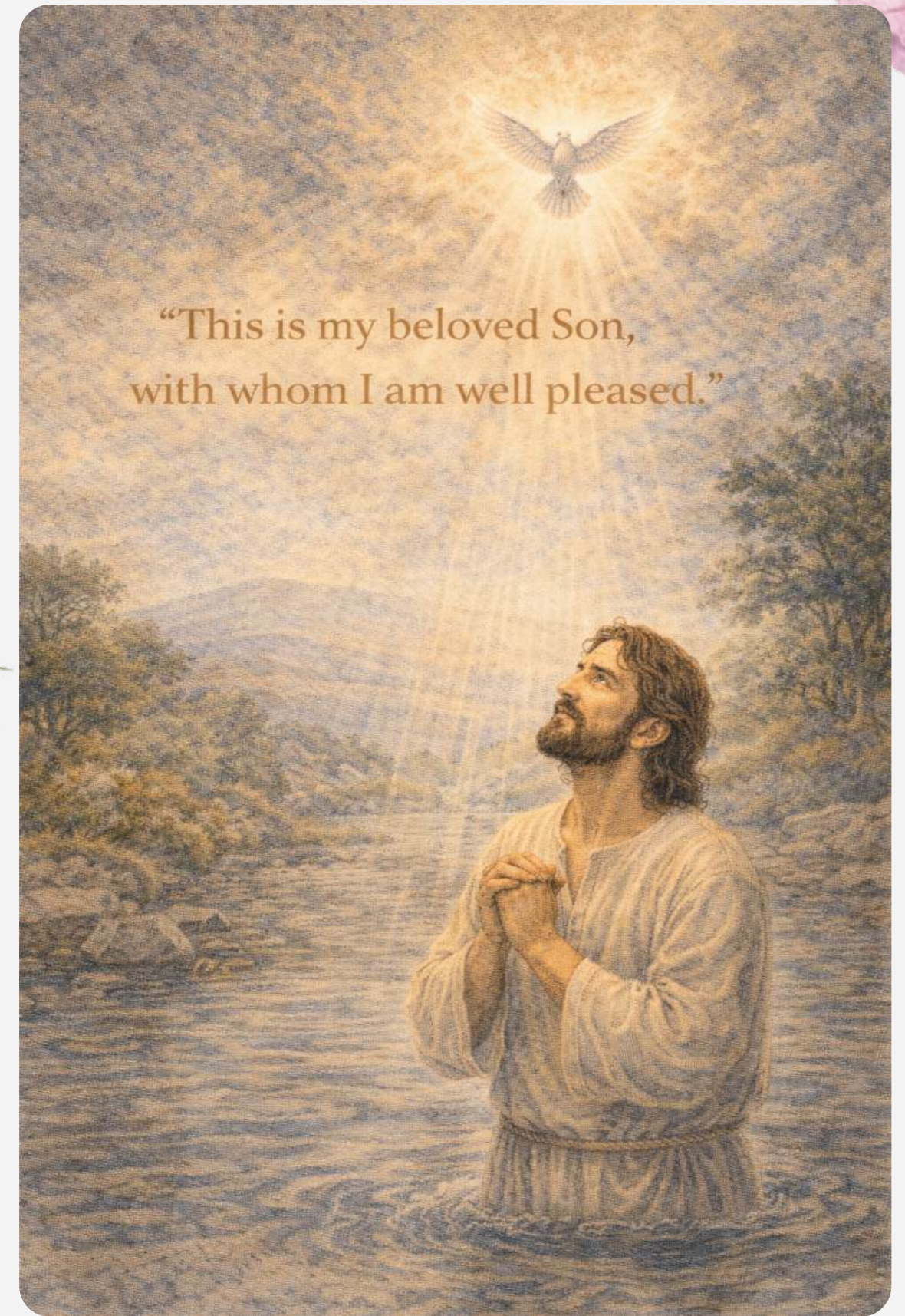
침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깊이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은 메시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진짜 원수가 사탄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알리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선택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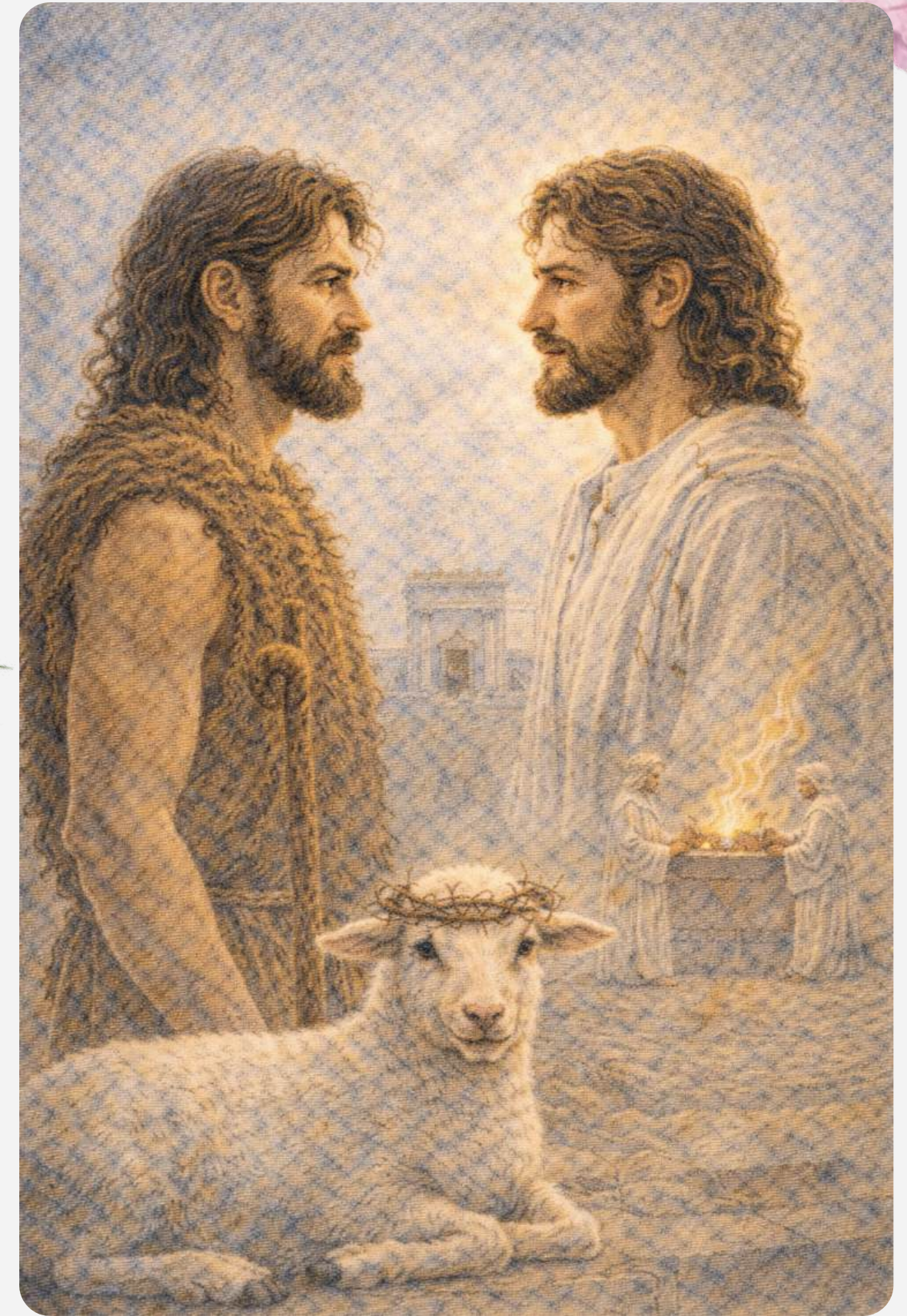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사탄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고 믿었어요.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드리던 제사가 가리키던
진짜 어린 양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약하고 힘없는
메시아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뜻을 잘 몰랐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로마서 6장 11절)

침례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이전의 죄된 삶과 옛 자아를 물속에 묻는다는 의미이며,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님을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침례를 통해 우리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삶을 선택합니다.

“개와 고양이”



반려동물이 죽어 장사되면 더 이상 그 삶을 돌보는 행동을 하지 않듯,
침례는 죄에 대해 죽어 더이상 죄를 따르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침례로 우리의 본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새 삶으로 부름받습니다.

신비한 동물들의 나이



세상에는 아주 오래 사는 동물과
아주 짧게 사는 동물이 있어요.

북극 바다에 사는 아이슬란드 조개는
400년 이상 산 것으로 알려져 있고
큰 바다거북은 100년 넘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하루살이는 이름처럼 하루나 이틀만 살고 생을
마치는 곤충이에요.

동물도 우리 손길이 필요해요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도
우리 곁에 영원히 있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고 아프고 또 수명이 다 되면 죽게 됩니다.

동물은 빠르게 자라요



반려동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함께한 적이 있다면
그 이별이 얼마나 슬픈지 잘 알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던 동물이 숨을 거두면 우리는 그 몸을
상자에 넣어 땅에 묻고 흙으로 덮어 주며 그 자리를 기
억하려 표시를 해 두지요 그것은 더 이상 살아 있는 생
명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행동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의미



반려동물이 죽은 뒤에는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고
함께 놀아 주지도 않아요.
아프다고 수의사에게 데려가지도 않지요.

그 동물이 죽었기 때문에 이전에 하던 행동들을
멈추는 거예요 이것은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의 방식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뜻



성경은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옛 삶을 묻는다고 말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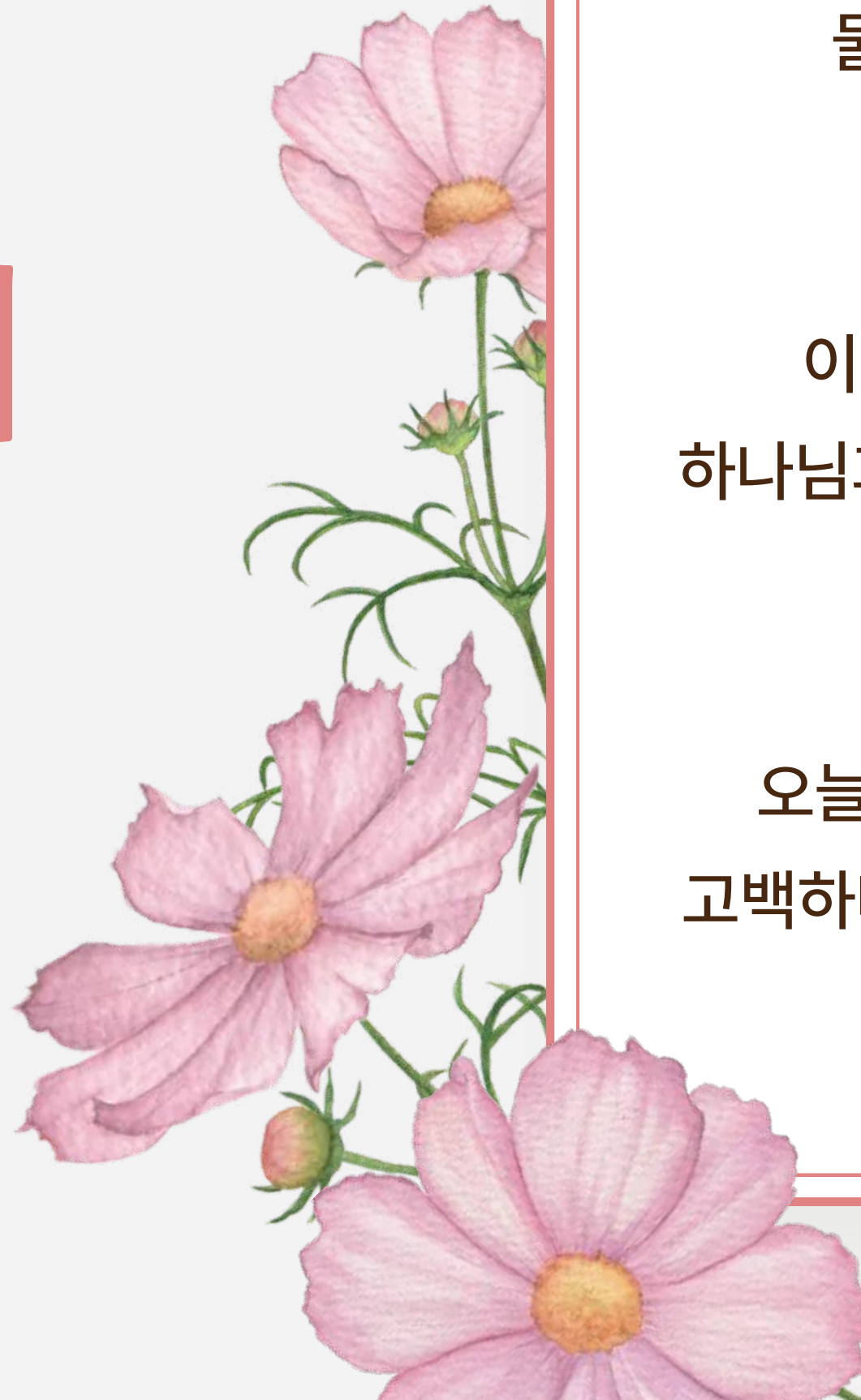
이것은 몸이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나쁜 일을 하던 삶을 그만두겠다는 뜻이에요.
반려동물이 죽으면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는 것처럼
죄와도 더 이상 함께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식을
본 적 있나요?

침례는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나쁜 마음과 행동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고백하며 새사람이 되는 기쁨을 느껴 보아요.



새 사람이 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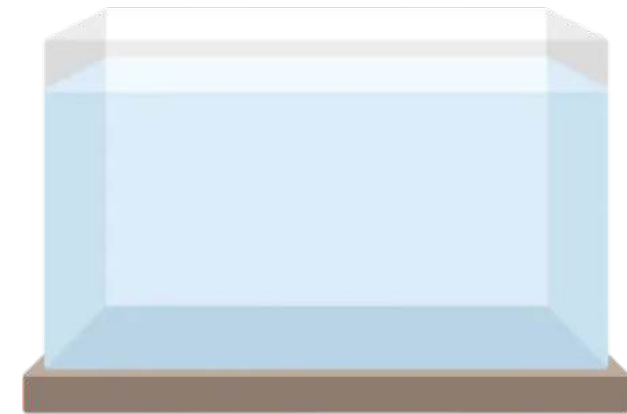
<준비물>



- 하늘색 천 (물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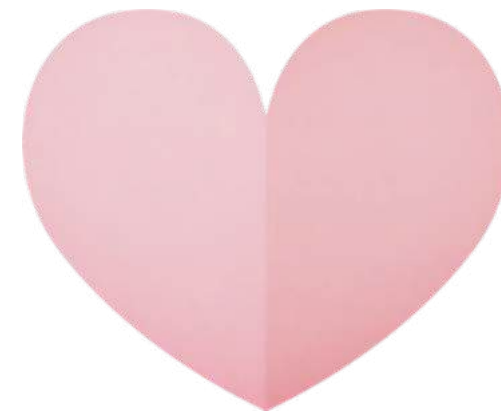
- 물에 녹는 종이



- 수조



- 필기도구



- 하트 모양 종이

새 사람이 되어요.

<활동 방법>

1. 침례에 대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침례식 사진 혹은 영상을 함께 보며)

- "얘들아 너희들은 침례식을 본 경험이 있니?"
-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 "성경에서 침례는 죄에 대하여 장사되어 진다고 말해요."
- "장사되어 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 "죄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약속하는 거란다."



새 사람이 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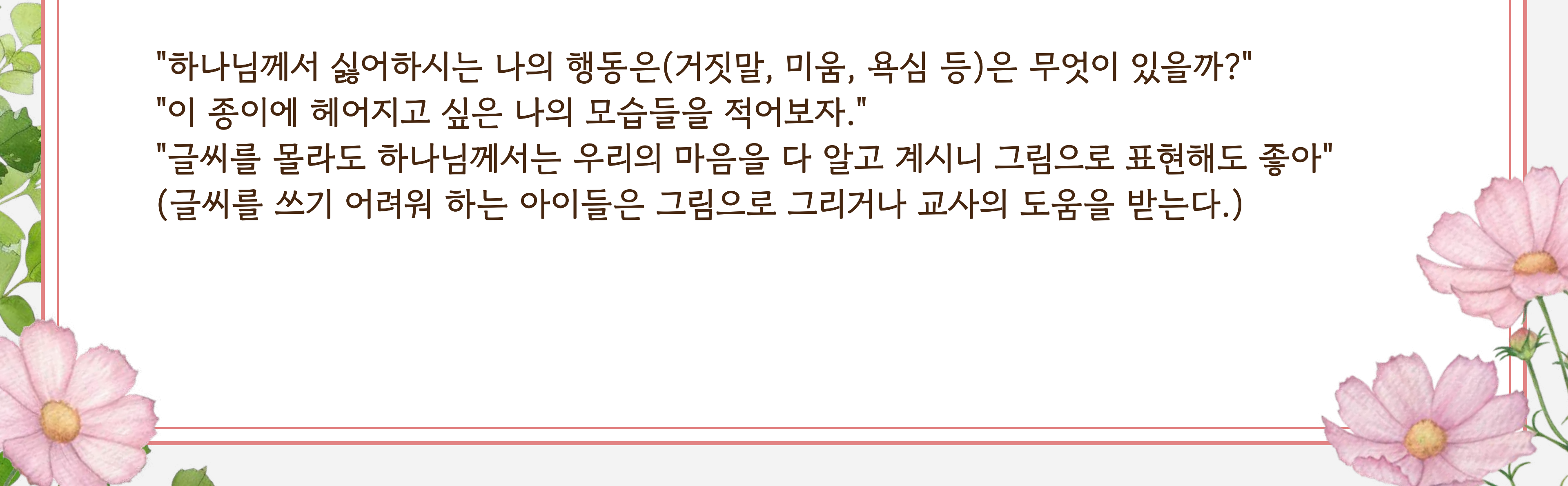
<활동 방법>

2. 나의 죄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수용성 종이에 적는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나의 행동은(거짓말, 미움, 욕심 등)은 무엇이 있을까?"

"이 종이에 헤어지고 싶은 나의 모습들을 적어보자."

"글씨를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 그림으로 표현해도 좋아"
(글씨를 쓰기 어려워 하는 아이들은 그림으로 그리거나 교사의 도움을 받는다.)



새 사람이 되어요.

<활동 방법>

3. 활동에 대해 소개한다.

- "다 적었니? 이제 이 종이에 적힌 모습은 더이상 함께하지 않기로 선택한거란다."
- "침례는 옛모습과 작별인사 하는 거란다."
- "여기 선생님이 왜 천을 달아놨을까?"
- "진짜 침례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느껴보려고 준비했단다."
- "천 뒤에 선생님이 물을 담아놔어. 조용히 나의 옛모습을 물에 녹이면 인사를 하고 나오도록 하자"
- "어떤 말을 하면서 종이를 녹이고 오면 좋을까?"

새 사람이 되어요.

<활동 방법>

4. 활동에 필요한 약속을 나눈다.

- "옛 모습과 작별하고 오는 시간 우리가 어떤 태도로 활동을 하면 좋을까?"
- "천을 지나서 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면 좋을까?"
- "그래, 옛 모습을 내려놓고 새사람으로 나와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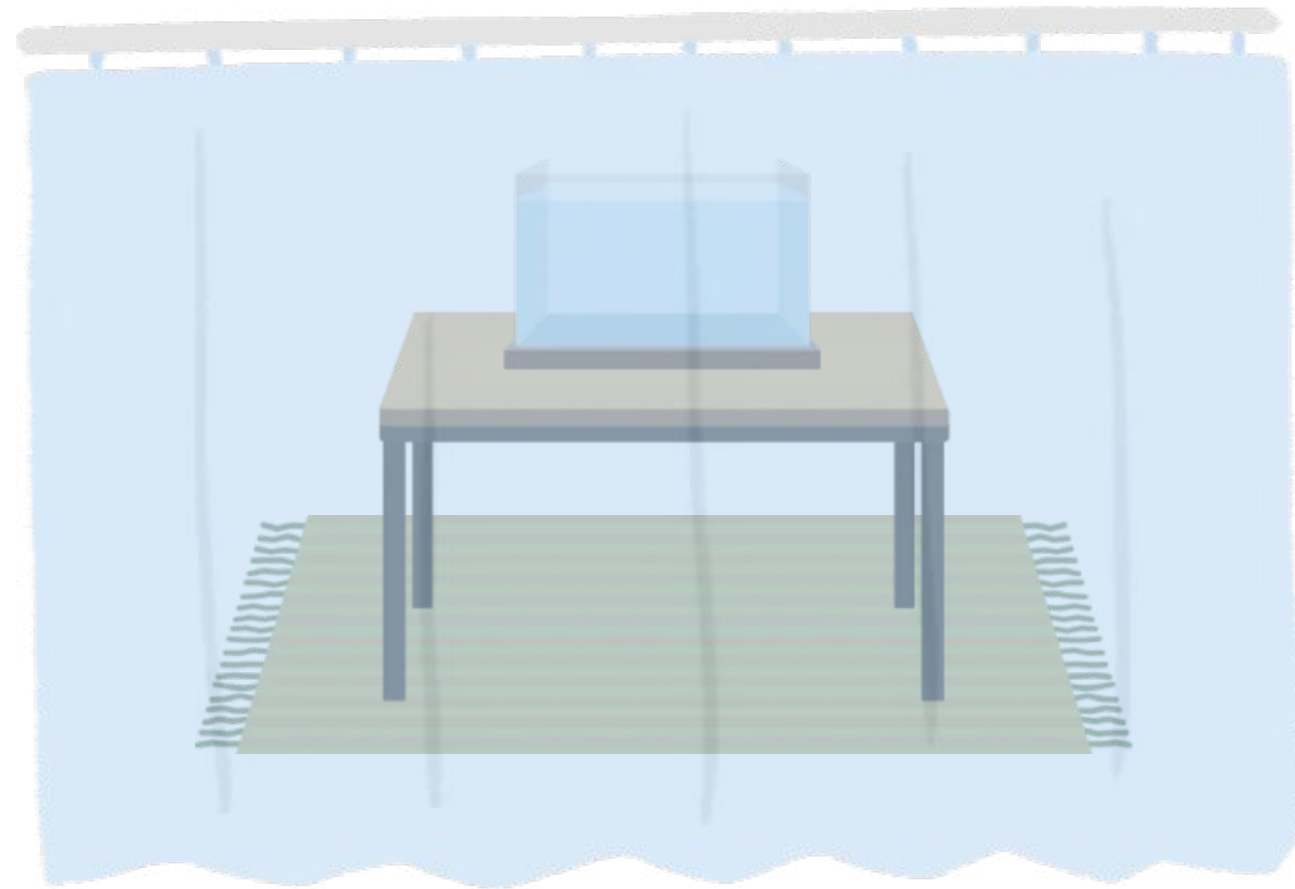
"tip"

1.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수조 안에서 물을 휘젓거나 장난하지 않기로 충분히 약속을 나눈다.
2. 수조 밑에는 미리 수건이나 매트를 깔아 물이 흘러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3. 잔잔한 음악을 사용하여 분위기를 경건하게 조성해 준다.
4. 아이들에게 죄를 고백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그림이나 기호 혹은 빈종이도 허용해 주도록 한다.

새 사람이 되어요.

<활동 방법>

5. 한 사람씩 천 뒤로 이동하여 종이를 물에 녹이고 나온다.



새 사람이 되어요.

<활동 방법>

6. 새롭게 변화된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고 종이(하트 모양)에 적어본다.

- “옛 모습과 헤어지고 나오니 마음이 어떤 것 같니?”
-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어린이라면, 어떤 모습일까?”
- “예수님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 어떤 행동을 할까?”
- “예수님을 닮아서 바뀌고 싶은 마음 하나만 적어볼까?”

7. 종이에 적은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며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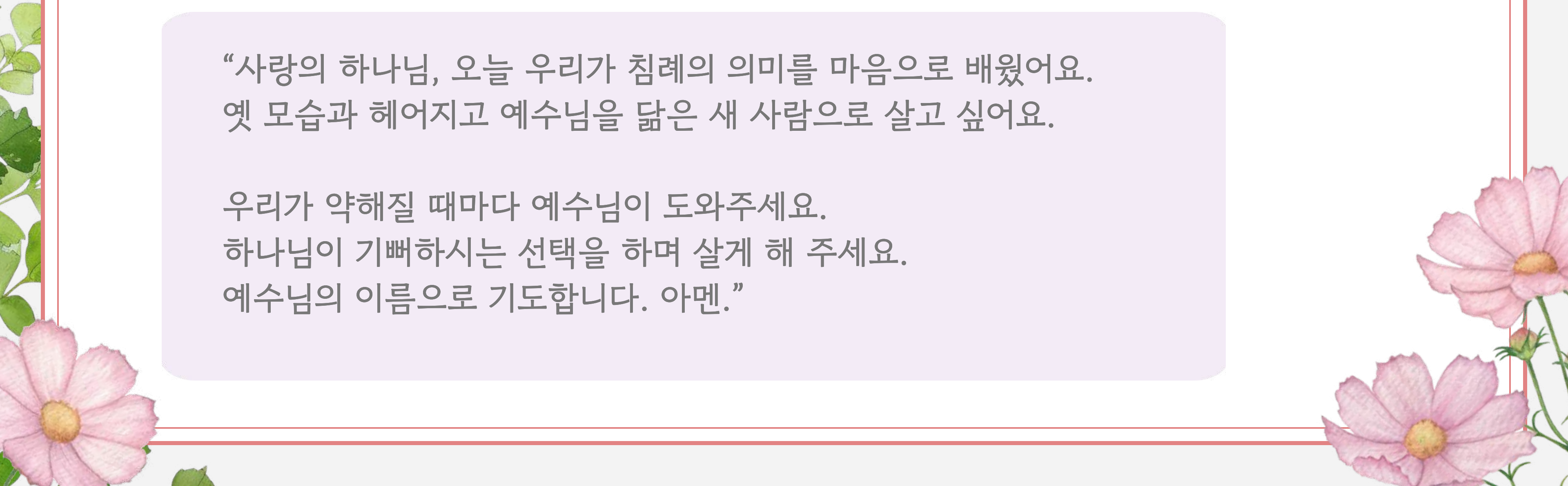
새 사람이 되어요.

<활동 방법>

8. 기도로 활동을 마무리 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침례의 의미를 마음으로 배웠어요.
옛 모습과 헤어지고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MY BIBLE FIRST

Thank you

행복하고 거룩한 안식일 보내세요~